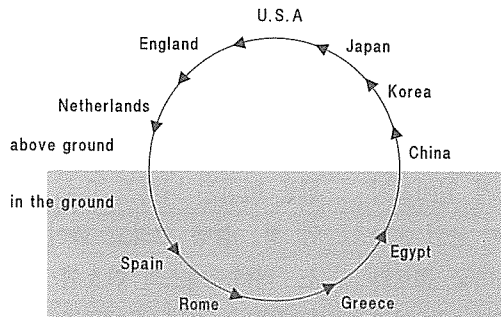


“현해탄에 해저터널을 놓자”

필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의 과정을 일본에서 마치고 귀국하여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창설한 후 대학에서 35년간 근무하다가 지난 1994년 정년퇴직을 했다. 과거 1천여년 전부터 일본을 가르친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지난 1백여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배우는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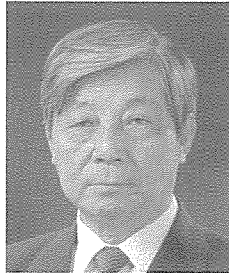
다음 그림은 필자의 시각으로 본 세계사의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본 것이다.



〈그림 1〉 세계사의 흐름

손잡으면 세계의 중심으로

18세기는 네덜란드, 19세기는 영국, 20세기는 미국이 세계를 리드한 국가였던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. 그러나 새롭게 맞이한 21세기는 전 세계가 좁아지고 크게 변했기 때문에 한 나라가 1백년을 주도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. 이러한 가운데 21세기는 아시아지역의 국가에서 세계를 리드할 것이라는 예상은 오래 전부터 많은 학자들로부터



黃鶴周
(연세대학교 명예교수)

터 예견되었던 이야기다. 이는 2040년까지 일본, 2040년부터 2070년까지 한국, 2070년부터 2100년까지는 중국이 세계를 리드해 나갈 것으로 내다보았다. 그러나 최근 이들 아시아 3국의 상황을 살펴볼 때 일본 혼자서 세계를 주도하기는 어렵게 됐고 한국 역시 단독으로 세계의 주도 국가가 되기는 더욱 감당하기 어

려운 상황이 되어, 앞에서 예측한 판단에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. 따라서 필자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방안의 한가지는 바로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협력하여 60~70년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.

다행히 두 나라는 동일 문화권 속에 인접해 있으므로 두 나라가 손을 잡으면 21세기 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.

이러한 내용에 바탕을 둔 한 예로써 필자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현해탄에 터널을 놓는 방대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자 한다.

얼마 전까지 매년 전 세계에서 건설에 투자되는 금액은 2천조 가량. 건설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합쳐서 이르는 말인데 2천조 가운데 1/4에 해당하는 5백조가 일본 단독으로 투자하는 금액이고 미국과 캐나다가 5백조, 유럽이 5백조, 나머지 5백조를 그 밖의 나라에서 투자하고 있다.

건설부흥해야 경기 활성화

일본의 경우 건설업과 관련되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40%에 이르고.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 국민의 25%라는 적지 않은 비율이 건설업에

한국과 일본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길은 건설업을 되살리는 것밖에 없다.
 1백조원의 사업비가 들겠지만 반사이익은 수백조원에 이를 것이다.

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. 그러나 최근 양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볼 때 건설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한국도 더 이상의 발전은 어렵고 일본 역시 퇴보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.

양국 모두 경기 활성화의 물꼬를 트는 길은 건설 사업을 부흥시키는 일인데 이런 일련의 사업 가운데 하나가 필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‘현해탄 터널공사’의 착수인 것이다. 이 사업에 예상되는 비용은 백조원. 그러나 이를 통하여 양국이 누리게 될 파급효과는 수백조 이상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.

우리가 실크로드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다시피 그것은 과거 중국 서쪽 장안(현재 서안)을 기점으로 로마로 이어지는 길이다. 수천년 전 낙타에 비단을 실어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운반되던 그 길

의 연장선에 이제 현해탄 터널이 놓이게 되면 실크로드의 출발점은 일본의 동경이 될 것이다. 수천년 전 낙타로 서역 땅을 연결한 실크로드가 이제 지구상 최초로 고속철도가 달린 일본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.

이러한 엄청난 프로젝트가 현해탄 터널공사에 관련되어 있다. 이 사업이 바탕이 되어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으면 21세기 양국이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...

필자의 판단으로는 지금이야말로 현해탄 터널을 놓을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되므로 우리나라 대통령과 일본의 국무총리가 현해탄 터널사업에 관한 진지한 대화를 통해 두 나라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면 한다. ⑤7



<그림 2> 현해탄터널 사업의 지도